

구 나가사키 세관 미이케 지서

1800년대 후반, 미이케 탄광의 석탄은 나가사키와 구마모토에 있는 항구로 수송되어 상하이, 홍콩, 싱가포르로 수출되었습니다. 1908년, 미쓰이 그룹이 석탄을 직접 수송하고자 미이케에 자체 항구를 건설했을 때 신속한 수출 절차를 위해 새 항구에 나가사키 세관 지서가 설치되었습니다.

세관 건물은 우진각 지붕의 목조 단층 구조로, 면적은 124.4 제곱미터입니다. 내부에는 접수처와 본청, 응접실, 문서 보관실 등이 있습니다. 1965년 세관 업무가 신청사로 이전된 후에 이 건물은 항만 사무소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민간 기업에 매각되어 창고가 되었습니다.

오무타시가 인수했을 때, 건물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. 2012년에는 완전히 철거된 후 가능한 한 원래 부재를 많이 활용하여 재건축되었습니다. 상들리에는 시대 고증을 반영한 복제품입니다. 건물은 원래의 색깔이었던 흰색과 파란색으로 도색되었습니다.

후쿠오카현은 이 옛 세관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으며, 세관이 있던 부지는 국가 지정 사적이 되었습니다.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에 공개됩니다. 2015년, 미이케 항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.